

선력 6:3 / 제주 지방선거 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당·이름 가나다 순>

문대림 “제주 도민성장 펀드 조성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제주 도민성장 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의원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주 경제 정책은 국가 성장 전략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과

균형성장 구조에 맞춰 지역 경제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제주 도민성장 펀드’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매년 300억원씩 4년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 자금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펀드 투자 분야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청



정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체류형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산업, 레드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 산업, 스마트 농수축산 및 로컬 산업 등이다. 문 의원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제주 도민성장 펀드’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채현기자

오영훈 “‘기본사회 3대 복지 패키지’ 추진”

6:3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자리와 주거, 소득을 축으로 한 ‘기본사회 3대 복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도민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다. 오 지사는 우선 5060세대를 대상

으로 한 ‘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하면서 주택 지분을 축적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노동연계형 기본주택’ 구성



을 제시했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바람·햇빛 기본연금’을 도입해 아동·청소년과 노인 등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기본사회의 전환은 지역 공동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김채현기자

위성곤 “도지사 직속 기본사회추진단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를 제주에 맞게 재구성한 ‘무지개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했다. 위 의원은 기본사회 정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지사 직속 기본사회추진단과 도민 참여형 기

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생애소득 보장,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기본사회 정책 실현 위한 공공부문 및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모두의 AI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가치돌봄 등 지역기반



서비스와 연계한 43개 읍면동 돌봄센터 구축, 퇴원 환자 즉시 지역 돌봄 연계 체계 마련 등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를 대한민국의 기본사회의 국가적 선도 모델로 만들어 제주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기자

도, 출산·육아 공직자 지원 확대

난임치료 동행휴가 신설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즐거운 가정,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부부 지원, 양육 여건 개선, 출산 및 육아

장려, 실행력 제고 등 4개 핵심 분야를 올해 중점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우선 출산과 육아기 공직자를 위한 복무제도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출산 축하 포인트는 전년 대비 자

녀 수별로 20만원씩 상향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경쟁 채용 응시 자격을 완화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를 적용한다. 또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게 복지 점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장애인 이동권 보편적 설계로 확장”

서귀포시, 경사로 설치 지원·전동보장구 비치 등 추진 병원동행서비스 확대 등 일상생활 불편 단계적 개선

서귀포시가 장애인 접근권·이동권 개선을 위해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정책 방향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특수 사양’을 넘어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어린이, 일시적 부상자 등 이동 약자 모두에게 유효한 보편적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접근권 개선의 첫 과제로,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이 불편한 시민에게 생활권 현장에 남아 있는 사각지대인 ‘문 앞에서 멈추는’ 장벽을 허문다. 1000만원을 투입해 식당과 카페 등 소규모(50㎡ 미만) 점포 20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이동권 침해사례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500만원을 들여 상반기에 관제 단말기 5대를 추가 설치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관제시스템으로 불법 주차를 사전에 차단해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에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긴급 상황이나 방문 시 즉각적인 이동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무인단말기 접근성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흐름에 맞춰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홍보·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시는 8500만원을 투입해 운영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시간도 1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한

다.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접근권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시는 “정책은 ‘빠름’보다 ‘함께 도착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시열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접근권·이동권의 표준은 속도가 아니고, 그 속도가 누군가를 남겨두는 속도라면 공동체의 신뢰는 약해진다”며 “이러한 전제하에 접근권·이동권 개선을 위한 예산을 단순 지출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투자로 인식해 일상 공간의 작은 틈부터 제도적 장벽까지 순차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장애인 병원 동행서비스에 직접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훼손된 행원리 산림생태 복원 본격화

자생 수종 중심 혼효림 조성 제주시가 구좌읍 행원리 일원의 훼손된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업비 4억600만원(국비 2억8400만원, 지방비 1억2200만원)을 투입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복원 대상지인 행원리 일원(4ha)은 곳자왈과 해안 저지대를 연결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복원 이후 주변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곳이다. 이에 시는 현지 자생 수종을 중

심으로 다층 혼효림을 조성해 동·식물의 먹이와 물 공급 조건을 개선하고 생태통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 산림생태복원사업 대상지 8ha에 대해서도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 올해 안에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복원하는 사업이다. 백금탁기자

나무 건강 진단 서비스

공공기관 대상... 선착순 50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나무의사 현장 방문 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업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나무의사가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목 진단과 처방전 발급, 병충해 방제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학교 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공원, 도시 숲 등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도는 선착순 50건까지 신청 받는다. 김채현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국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2026년 예약중 보조사업 가능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100-29 / 조천읍 선흥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